

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

「유티맨의 펜촉」 공그립 김민재

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
있는 펜촉. (물로 작동하는 펜촉과도
상하 결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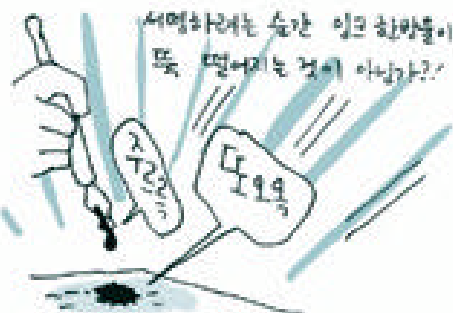


보통적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유티맨의
보통적 이상적인 공그립은 한알에 강하게 뛰어났다.

정만, 내가 그의 인공성
수많은 일에 성공했다?
이 나한테는 별다른 안으로가야!



그러면 이게 뭘이??



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펜촉은 ()
보통적이지 않은 영영시적으로 큰위대한
46살의 '루이스 유티맨'에 의해서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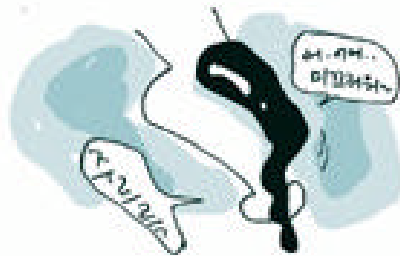
그러면 그렇게 어느날 고연의
계약이 한걸 이루어지는 순간에 있다.
이제 계약서에 사인한다면 믿어도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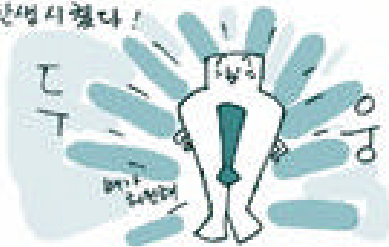
이로써 계약서는 불합한
경우이며 모든 계약에 관한
사실을 취소하고 돌아가버렸다.



당시의 펜촉에 구멍이 없어
잉크가 잘 흘러내리곤 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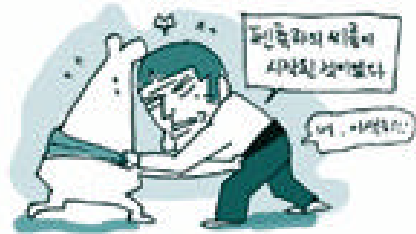
수많은 펜촉을 사다가 뺏았은 기리와
글을 이용하여 새로운 펜촉 만들기를 한일때.
어느날 그는 펜촉 가운데에 작은구멍을 뚫고
그 아래 부분을 예리하게 갈라 새로운 펜촉을
탄생시켰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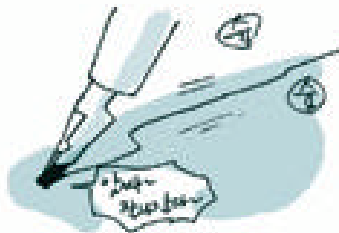
워터맨은 즉시 특허출원을 했고,
판매에 나서자 날벼락처럼 팔려나갔다.



여론 이 일로 화가 탄탄히 난
워터맨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새로운
펜촉을 만드는데 전념했다.



이 새로운 펜촉은 글씨가 잘
써질뿐 아니라 잉크도 쉽게
말라지질 않았다.



더러기업은 워터맨에게 로열티를
주고 펜촉을 판매했고, 그는 연간
10만달러씩 벌어들였다. 이로 인해
워터맨은 백만장자가 되었으며
그의 이름까지도 만천하에
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.

